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라 고생돼도 생명길로 가라

본 문 마태복음 22장 37절 (핵심만 봉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 문서 말씀은 4월 17일 생방송 말씀 내용 중에서
추가되고 교정된 내용으로 '최종 완성본'입니다.

◎ 할렐루야! 오늘은 <2016년 성찬식 주일>입니다.

◎ 하나님의 마지막 성약 섭리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휴거 역사>를 맞았고,
지금 <휴거의 문>이 열려서 계속 <휴거>는 진행 중입니다.

이 역사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자만이
최고의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누리며 갈 수 있는 이때입니다.

◎ 이 귀한 때에

때에 따라 오늘은 <이 시대 성찬식>을 맞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 ◎ 몇 년 동안 전해 준 ‘성찬식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성찬의 의미와 사연〉에 대해 알고
〈성찬 예식〉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이 시대 성찬의 의미와 사연〉을 알아야
〈성찬식〉을 제대로 준비하고 맞을 수 있습니다.

- ◎ 매년 성찬식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 줄 수 없으니,
각자 ‘지난 성찬식 말씀’을 듣고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성찬식을 맞았던 분들은

〈이 시대 성찬의 의미와 사연〉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식 말씀을 다시 듣고 준비했을 것이고,

올해 수료한 분들은

〈이 시대 성찬의 의미와 사연〉을 알고 성찬식을 맞기 위해서
성찬식 말씀을 다시 듣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 ◎ 오늘은 그 터전 위에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 성자 주가

이 시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라.

고생돼도 생명길로 가라.’입니다.

<말씀 시작>

- ◆ 인생 앞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외길 (한 길)’이 아닙니다.

항상 ‘두 가지 길’ 이 있습니다.

곧 <성공의 길>과 <실패의 길> ‘두 길’ 입니다.

- ◆ 어떤 사람은 인생은 ‘외길’ 이라서
<성공 길>, 아니면 <실패 길> 하나만을 간다고 말하는데
그런 ‘무조건적인 운명의 외길’ 은 없습니다.

- ◆ 만일 사람이 돌이나 나무 같은 존재라면,
상대의 의향에 따라서 ‘길이 결정’ 됩니다.

돌이나 나무를 보세요.

돌 자신, 나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싶다고 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결정되지 않지요?

돌을 가져가는 사람, 나무를 캐 가는 사람에 의해
자기 길이 결정되니 돌과 나무의 길은 ‘외길’ 입니다.

- ◆ 그러나 <사람>은 돌도 나무도 아닙니다.

인생은 살아 있기에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살기에 따라서
<어떤 길>로 가느냐가 ‘결정’ 됩니다.

고로 인생들에게는 ‘외길’ 이 아니라
항상 ‘두 길, 양단의 길’ 이 있습니다.

- ◆ 사람은 뇌로 생각하고 몸으로 행하며
자기 인생, 자기 운명, 자기 삶을 결정짓고 삽니다.

곧 <자기 행위>에 따라서 ‘길’ 이 결정됩니다.

자기가 제대로 생각하고 행하면 <성공의 길>로 가게 되고,
자기가 제대로 못 하면 <실패의 길>로 가게 됩니다.

◆ 인생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실패 없는 성공의 외길>도 없으며,

<성공 없는 실패의 외길>도 없습니다.

<성공의 길>로 갈 수도 있으니

실패할까 봐 실망하기만 할 수도 없고,

<실패의 길>로 갈 수도 있으니

성공한다 생각하고 마음 놓기만 할 수도 없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 ◆ 어느 때는 <성공 쪽>이 70%이고 <실패 쪽>이 30%라서
<성공 쪽>이 훨씬 더 유력하니 행하는 대로 성공하게 됩니다.

- ◆ 어느 때는 <성공 쪽>이 90%나 되고,
<실패 쪽>이 10%밖에 안 돼서 쉽게 성공할 수 있기도 합니다.

- ◆ 그러나 어느 때는 <성공 쪽>이 10%이고,
<실패 쪽>이 90%라서 실패할 확률이 더 높기도 합니다.

- ◆ 그러나 인생을 보세요.
대부분 <성공 쪽>은 10%이고, <실패 쪽>이 90%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된다면

성공률이 90% 이상이니, 누구나 성공하기 쉬울 것입니다.

- ◆ 또한 ‘자기가 기존에 했던 것’을 버리고 ‘새 길’로 가려니,
<성공률>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 ◆ 누구든지 ‘자기가 살던 기존의 삶, 기존의 길’을 뿌리치고
<새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휴거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것도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존의 삶, 기존의 생각,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주가 주는 ‘새로운 진리’를 가지고
그에 따른 ‘새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기 기존의 삶’을 조건으로 내주는 것입니다.

<기존성>을 버리지 못하면
<새 것, 새 길>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것>을 내줘야 그 조건으로 ‘새 길’을 얻게 됩니다.

- ◆ 그래서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 길>로 갈 때는**
<성공할 확률>이 10%이고, <실패할 확률>이 90%나 됩니다.

반복하자면, 기존성을 버리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해 왔던 것을 버리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 ◆ 이때 **<성공할 수 있는 운명적인 결정>은...**
곧 -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날 때도 정말 힘들지요? 왜 그럴까요?

잠을 자고 있었으니, ‘잠자고 있던 기존성 90%’가 자기 생각도 몸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의 잠>을 버리고 <새롭게 새벽 일찍 일어나는 길>은 성공 확률이 10% 정도로 매우 낮아집니다.

<기존성>이 90%나 장악하고 있으니,
<새 길로 갈 가능성> 10%를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이때는 ‘보통’으로 하면, <기존성> 때문에 집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일어나고자 하면,

그때는 ‘가능성 10%’가

‘기존성 90%’를 이기고 일어나게 됩니다.

◆ 어떤 일이든 그러합니다.

<기존성>은 기존에 자기가 해 왔던 것이고,
기존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니 90%나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택하여 성공하려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성>을 이기고 ‘성공의 길’로 가게 됩니다.

◆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라.

이것이 제1계명이다. - 한 것입니다.

◆ 자기 생각과 자기 삶을 장악하고 있는

<90%의 기존성>을 버리지 않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지 않으면,

절대 <새 길>을 ‘성공의 길’로 만들 수 없습니다.

◆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중시하여 하나님을 믿으며

기존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성’ 때문에 <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존성’ 때문에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기존성’ 때문에 <새 역사, 새 길>로 오지 못했습니다.

◆ 예수님 앞에도 ‘양단의 길’이 있었는데,

곧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광의 주>, 아니면 <고난의 주>였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영광의 길>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난의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의 주’가 되는 것은

<성공 쪽> 10%, <실패 쪽> 90%였습니다.

왜요?

유대 종교인들이 믿고 따르던

<기존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약의 새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로 믿게 해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 ◆ <예수님의 마음>만으로 구원이 결정된다면,
예수님이 다 하면 되니까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구원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믿고 따르고 행해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존 율법을 중시하여 하나님을 믿고 있던 자들>이
“내가 믿던 방식과는 다르다.
내가 들었던 말씀과 다르다.
내가 알던 것과 다르다.” 하며 기존성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핍박하고 반대했습니다.

고로 예수님 앞에 <성공 쪽 영광의 길>의 가능성은
10~2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실패 쪽 고난의 길>로 갈 확률이 80~90%나 됐습니다.

- ◆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그 희박한 10%의 가능성을 가지고
결국 해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요? 그냥은 안 됩니다.

이미 구시대는 불신한 채 끝났고,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도 책임 분담을 못 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끝까지 행했고,
본인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루셨습니다.

그 ‘희생과 사랑의 조건’으로

사망으로 기울어진 판국을 뒤집어

만민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았고,
<새 역사, 신약의 길>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는 ‘이 시대 구원자의 육신’을 쓰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예수님을 믿던 자들’이
새 역사 새 말씀을 불신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존성> 때문에 ‘역사의 성공 확률’은 10%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새 역사를 따르며 시대 주를 믿고 따른 자들’도
자기 삶의 기존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주를 완전히 믿고 행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으로 판국’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대로 두면, 구원이고 뭐고 다 끝이었습니다.

◆ 고로 시대 구원자는

또 ‘시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함으로 모든 값을 치르고
‘사망으로 기울어진 판국’을 뒤집어
<새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 구약에서 신약까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좋게 예정했으나,

<기존성을 가진 자들>이 자기가 살던 대로 사느라
하나님의 역사를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도, 사사들도, 중심인물들도, 메시아도

<그 시대에 해당되는 십자가>를 지고 ‘희생’ 하고

다시 ‘사망으로 기울어진 판국’을 뒤집어 그들을 살렸습니다.

결국 ‘보낸 자의 희생’으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뚫었습니다.

- ◆ 고로 이 시대도 주가 ‘십자가의 길’을 갔다고
곡하게만 생각하지 말아요.

주가 ‘희생’하여 ‘사망으로 기울어진 판국’을 뒤집고

<새 역사 휴거의 길>을 열어 났습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 ◆ 주가 십자가를 안 지게 하려면
첫째, 기존성에 있는 자들 - 기성이 받아들였어야 됩니다.
둘째, 이미 주를 알고 따른 자들이 목숨 걸고 했어야 됩니다.

- ◆ 이방인들은 ‘생땅’이라서 힘듭니다.

<생땅>이라는 말은

‘한 번도 손대지 않고, 갈지도 않고,

거름도 주지 않아서 굳어 있는 땅’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뭘 알겠습니까?

이미 기존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던 자들이
<새 역사>를 알고 따르며,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부패되고 패역한 세대>가 되어 더욱 힘들게 됐습니다.

- ◆ 섭리역사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을 때도
기성인들은 안 따랐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새 역사>를 안 받아들였습니다.

- ◆ 그리고 ‘주를 알고 따르는 우리’가 잘했어야 합니다.
선생이 중국에 있을 때, 그때라도 정말 잘했어야 합니다.

- ◆ 첫째, <이 시대 기성인들>이 ‘시대 주’를 받아들이고
둘째, <시대 주를 알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 되어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서 해야 성공할 확률이 90%입니다.

그런데 <기성>도 못 했고,
<시대 주를 알고 따르는 자들>도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90%가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 ◆ 주가 십자가를 안 지려면,
수십만, 수백만이 따랐어야 합니다.

<시대>가 따라 줘야 <주>가 십자가를 안 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에 <주>가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 ◆ 이로 인해 사탄에게 당하고,
사탄은 시대 주를 ‘십자가’로 몰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사랑’이 근본이지요?

이에 따라 사탄은 ‘사랑’에 이유를 달고,
‘창조 목적에 관한 십자가’로 몰고 갔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 ◎ 지금 하는 말씀을 잘 들어요.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꼭 알고 ‘시대 성찬식’을 맞고,
주와 같이 이것에 대한 원통함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 ◆ 시대 십자가를 질 때 억울하고 원통했지만,
그 억울함과 원통함은 ‘10년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시대 주를 알고 따른 자>들이 제대로 못 한 것,
<기성>이 육성으로 흘러 사망에 처한 것,
이것이 그리도 억울하고 원통했습니다.

- ◆ 그러나 <시대 주>는 자기 몸을 내 주어 ‘희생’하여 값을 지불하고
‘시대의 생명들’을 사고 ‘구원과 휴거의 길’을 열어 났습니다.

결국 ‘시대 십자가’를 저 주고,
구원역사 6000년 만에
<휴거>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가!! ‘하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에덴동산의 뜻’을
<개인>이 아닌 <시대>가!! 이루었습니다!

그로 인해 1000년 동안 성약역사의 후손들에게도
‘영광의 길’이 열렸습니다!

◆ 그러니 따지고 보면

이 시대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그 ‘희생의 조건’으로

1000년 동안 성약역사를 힘 있게 펼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가 십자가는 졌지만, 이 시대는 ‘육신’이 살았습니다.

<육신>이 살았으니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 말씀’을 줄 수 있었고,

모두 회개시키고 부활시키고

휴거의 때를 알게 하고 준비시켜 휴거시켰습니다!

◆ <육신>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 ‘미약’하지만

<영>은 더 치솟아 더 ‘신령’하게 되었고,

오히려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

<주 앞의 두 증인>과 <섭리 전체>도 더 ‘신령’하게 되었습니다.

◆ 고생돼도 ‘생명길’로 갔으니,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 고생돼도 희생하면서 ‘생명길’로 갔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 ◆ <역사의 과정>에는 ‘환난과 핍박’ 이 많았지만,
<과정 중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성공했으니,
<과정 중에 고생한 모든 것>도 결국 ‘성공’ 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실패’ 했지만 <현실>에 ‘성공’ 했다면,
<과거의 모든 실패와 고생>까지 ‘자랑’ 하게 되고,
‘성공하기 위해 그렇게 고생했구나.’ 합니다.

- ◆ 올해 성찬식부터는 달라야 됩니다.

<주>를 머리로 두고 <자신>은 ‘몸’ 이 되어
완전히 ‘주의 정신, 주의 사상’ 으로 무장하고,
주가 무엇 때문에 그리도 원통하고 억울한지 깨닫고
그 심정을 완전히 받고 <시대 성찬식>을 해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 ◆ 하늘은 - 고생해도 <생명길>로 갑니다.
90%가 불리하여 고생되더라도 <생명길>로 갑니다.
항상 그렇게 역사를 펴 나갔습니다.

- ◆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자들을 믿게 하고
기존성에 있는 자들을 ‘새 길’ 로 이끌어 와야 하기에
<90% 불리한 여건>에서 역사를 펴 나갑니다.

결국 나머지 <10%의 성공할 확률, 10% 가능성>
곧 <십일조>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역사를 폈습니다.

- ◆ 예수님도 율법주의자들 앞에

<성공할 확률 10%>를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섭리역사도 그러합니다.

기존 신앙 90%에 맞서, 나머지 10%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 ◆ 구시대인들은 ‘새 역사, 새 길’에 대해 캄캄하니까,
구시대에는 <새 시대, 새 역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공할 확률도 낮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기존성> 때문에 불리한 조건으로 ‘새 길’로 가는 것입니다.

- ◆ 고로 <주>는 ‘희생’으로 값을 지불했습니다.

고생돼도 생명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사선(死線)을 넘나들면서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 ◆ 첫 번째에는 잘 안 됐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에는 잠을 안 자고 하면 됩니다.

이것이 ‘희생’입니다.

목적지에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합시다.

그러니 ‘성공률 10%, 실패율 90%’입니다.

이때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잠 안 자고 먹을 것 안 먹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는 섭리역사를 펴 오면서 ‘이런 길’을 갔습니다.

- ◆ 야심작도 계속 쌓았지만 무너졌지요?
고생돼도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기어코 다시 쌓았습니다.
주는 ‘이런 길’ 을 갔습니다.

- ◆ 주가 이렇게 살아왔기에 <낮은 성공 확률>을 가지고서도
<이 시대 구원과 휴거의 길>을 열어 놓고,
<휴거>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을 이루고 만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 ◆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구시대>는 ‘부정부패’ 로 죽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못 풀어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구시대>는 끝나서 더 이상 길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제자들>도 책임 분담을 못 했습니다.
그들이 책임 분담을 했으면 가능했습니다.
- ◆ <구시대>도 끝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책임을 못 해서 끝났는데,
‘메시아 예수님의 희생’ 으로 다시 살려 졌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육신>은 ‘삶의 부활’ 을 이루었고,
<영>은 ‘영의 부활’ 을 이루었습니다!
- ◆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이미 <기성>은 따르지 않고 불신했고,

<시대 주를 알고 따르는 자들>도 제대로 책임을 못 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판국이 기울어 끝나 버립니다.

이때 <주>가 ‘희생’ 하여 다시 살린 것입니다.

<주>가 ‘희생’ 으로 값을 지불하여 시대 생명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모두 ‘신부로 부활’ 되었고 ‘휴거’ 되었습니다.

- ◆ 그냥 살아나고, 그냥 부활되고, 그냥 죄가 청산되고,
그냥 구원받고 그냥 휴거된 것이 아닙니다.
<주의 희생>으로 된 것입니다.

- ◆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 를 믿어야 됩니다.

<주>가 희생함으로 값을 지불하여 샀으니,
이제 ‘자신들의 몸’ 이 아니라 ‘주의 몸’ 이 된 것입니다.

고로 100% <주>를 믿고 시인하며,
<주>와 생각 일체, 행동 일체, 사랑 일체 되어
<주의 몸>이 되어 살아야 됩니다.

- ◆ 이것을 잊지 말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란, ‘의지’ 를 말합니다.
<의지>는 ‘절대 필요성’ 을 가질 때, 생기게 됩니다.

누가 값을 지불하여 사망에 속한 자기를 샀는지 깨닫고,
누구로 인해 자기가 구원받고 휴거를 이루게 됐는지 깨닫고,
<시대 주의 가치>와 <새 역사의 가치>를 깨닫고,
절대 ‘주의 필요성, 휴거의 필요성’ 을 깨달아야 됩니다.

- ◆ 절대 <하고자 하는 마음>, 곧 ‘의지’ 를 가지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와 같이 행해야 됩니다.

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나고요?

<기존성을 버리고 도전하는 것>이니,
성공 쪽 확률은 10% 정도입니다.

고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야 성공합니다.

- ◆ <신앙>뿐 아니라
<인생>도 ‘불리한 것’ 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고로 선불리 하면 안 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만 해도
‘불리한 상태’ 에서 ‘새 길’ 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몸도 생각도 ‘잠자는 쪽’ 으로 장악되어 있는데,
<잠자는 기존성>을 버리고 일어나려니 불리하고 힘듭니다.

고생해도 생명길로 가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면,
<성공률 10%>를 가지고
<기존성 90%>를 물리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 ◆ 신앙의 길, 인생의 길도 그러합니다.
<기존성> 때문에 불리하고 힘드니, 선불리 하면 안 됩니다.

고생해도 생명길로 가겠다 결심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해야

기존성을 뿌리치고 불리한 조건을 이기고 성공합니다.

- ◆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인생 성공, 신앙 성공은 살아 있을 때 쇼부를 봐야 됩니다.

잠잘 때는 먹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합니다.

잠에서 깬을 때 먹고 행하며 쇼부를 봐야 됩니다.

이와 같이 정신이 살아 있고, 육이 살아 있을 때 쇼부를 봐야 됩니다.

육신이 살아 있을 때 딱 잡고 뒤집고,

또 딱 잡고 뒤집어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

◎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 ◆ 자기 인생, -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은 ‘ 좋게 예정 ’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좋게 예정해 놓으셨어도

결국은 ‘ 자기 행위 ’ 로 <성공 길>, 혹은 <실패 길>이 결정됩니다.

- ◆ <너의 행위>로 ‘ 실패의 길 ’ 로 가고 있느냐?

<너의 죄>로 ‘ 실패의 길 ’ 로 가고 있느냐?

이제 소용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결정한 채 생각하고 행해 버리면,

주가 희생하고 용서하여 준 ‘ 구원과 휴거 ’ 가 다 깨져 버린다.

결국 ‘ 자기 ’ 가 깨뜨리는 것이다.

다시 방향을 돌려 ‘주의 뜻’ 대로 행해라.

그리하여 ‘너의 옳은 행위’ 로 다시 <성공의 길>로 가자.

그러나 성공할 확률은 10%다. 왜?

네가 기존에 생각하던 것, 살아 왔던 ‘기존성’ 이 있으니 그러하다.

그 ‘기존성’ 이 90% 너의 삶을 장악하고 있으니 힘들다.

고생돼도 생명길로 가자!

주가 희생하여 너를 살렸으니,

이제 주를 절대 믿고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주 뜻대로 하자.

그리고 주의 몸이 되어 살자!

그를 머리로 하여 주의 몸이 되어 행하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라!

이 말이 ‘운명의 단어’ 다.

◎ 말씀 마쳤습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